

“모두에 공평한 기회… 돌봄부터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

이재명 '교육대전환 8대 공약'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디지털시대 주도 미래인재 양성
교육기회 사다리 공정하게 복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박정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며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이주원 한국외대 전 총학생회장은 10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대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대전환위가 밝힌 8대 공약은 ▲ 돌봄 국가책임 ▲ 디지털 전환 교육 ▲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 행복한 지요일(지역 학습일) 도입 ▲ 대입 공정성 강화 ▲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학문 강국 건설 ▲ 평생학습 체제 전환으로 이뤄졌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아이들의 꿈

이 실현되는 교육, 밝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워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대전환위는 먼저 돌봄 국가책임

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고른 돌봄과 교육을 비롯해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통합 돌봄을 추진하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메타버스·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역량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관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K-에듀버스’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주원 전 학생회장은 “디지털 전환 교육은 새로운 시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디지털 전환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은 물론,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대전환의 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복원할 것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K-에듀버스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업 및 학습방안을 점검하고,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 시행과 학교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확실하게 개편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축소 등을 설명했다.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아웃도어스쿨과 같은 운영성과들을

접목해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행복한 지요일’ 수업으로 지역이 곧 돌봄과 교육의 터전이 돼 공동체 삶 전체가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대전환위는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꼭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과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을 말했다.

이밖에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과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2살 아이, 부모 빚 대물림 뿌리 뽑는다”

이재명 “민법·관련 입법 서두를 것” 개인파산 신청 미성년자 80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성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법상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 및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화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두 살이 갓 낚은 아이에게 빚이 상속된 사례와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3억원을 상속받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나의 아저씨’ 사례를 언급했

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11월 판결에서 부모가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법 해석만으로는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으로 이뤄졌다.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산업의 5대 분야에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고, 이는 지역경제 부흥과 150만개 일자리 창출, 500조 녹색공공투자와 혁신가형 정부라는 3대 전략으로 실현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후진국가에서 선도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심상정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5대 산업분야·3대 혁신 전략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녹색 혁신을 통해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단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 그린노믹스를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번영을 위한 ‘그린노믹스(Green-nomics)’”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로 불평등과 탄

소경제라는 ‘구질서’ 경제와 결별하고,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며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할 계획을 설명했다.

심 후보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린노믹스는 이 밖에 ‘5대 녹색산업

다시 꺼낸 ‘세대포워론’에 갈라치기 비판

이준석표 승리 방정식 자신 윤석열, ‘여가부 폐지’ 메시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에서 산업화·교역일변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선 승리 방정식으로 내세운 ‘세대포워론’이 오히려 세대와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며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대포워론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신규 지지층인 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대를 공략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20·30 세대가 50·60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초기 국민의힘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세대포워론에 기반한 전략이 등장하는 듯했으나, 이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이어진 내용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신의진·손의춘 전 의원, 신지에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캠프 영입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 사이 갈등이 봉합되면서 윤석열 선대위는 세대포워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배우자 김건희 씨 학·경력 위조 의혹과 선대위 내용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며 이대남(20대 남자)을 끌어안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가부 폐지 관련’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또,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아바타라는 여당의 지적에 “당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을 이어받으면서 세대를 가르는 색깔론과 반중정서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는 정 부회장이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란 단어를 태그해 논란을 이어가는 와중에 직접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SNS에 #달걀, #파, #멸치, #콩 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달걀과 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상징하는 문파, 멸치와 콩은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 부회장을 지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10일 선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 인사들의 ‘멸공 릴레이’가 선대본 차원에서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멸공 챌린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